

데스크 시각

이난영 박물관을 만들자



송기동 문화2부장

#1969년 6월 11일 오전 11시, 삼학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목포 유달산 기슭에서 '목포의 눈물' 노래비 제막식이 열렸다. 목포 출신 가수 이난영(1916~1965)이 타계한 지 4년 만에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 노래비를 세운 이는 목포의기점을 운영하던 박오주 씨. 노래비에는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로 시작하는 노랫말과 함께 "살아 있는 보석은 눈물입니다. 남쪽 하늘 아래 꿈과 사랑의 열매를 여기 심습니다. 이난영의 노래가 문일석 가사 손목인 작곡으로 여기 청호의 냇처럼 빛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오석(烏石)에 새겨졌다. #2015년 10월 18일 오후 3시, '목포의 눈물' 발표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유달산 노래비 앞에서 열렸다. 목포의 눈물 기념사업회 정태관 집행위원

장의 '노래비 이야기' 토크쇼와 퍼포먼스, 아코디언 연주 등이 진행됐다. 이어 목포역기점과 목포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극단 갯돌의 막간극 '산다이 풍경' 공연과 김선태 시인(목포대 교수)의 낭송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목포역기점에서는 가수 이난영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과 무대상 등이 전시돼 관심 있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가요 '목포의 눈물'을 아끼는 목포 시민과 문화계 인사들의 애정이 물씬 묻어났다.

'전라도 애국가'로 생명력 이어

올해는 불후(不朽)의 국민가요 '목포의 눈물'이 발표된 지 80년, 가수 이난영이 타계한 지 50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이다. 이난영이 '목포의 눈물'을 취입한 해는 19살이던 1935년 9월,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백성들의 한(恨)과 설움을 노래한 '목포의 눈물'은 당시 음반이 5만여 장이 나 팔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여전히 애창하고 있다. 1935년 초 당시 대표적인 음반사였던 오케(O'keh)레코드는 '조선 6대 도시 찬가' 현상 모집을 실시한다. 이때 3000여 곡의 응모작 가운데 최우수작으로 뽑힌

작품이 목포 출신 시인 문일석(본명 윤재희)의 '목포의 노래'였다. 오케 레코드 이철 사장은 여기에 손목인의 곡을 붙인 뒤 '목포의 눈물'로 곡명을 바꿔 발표했다. 작사자 문 씨는 2월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노랫말이 일제의 검열에서 탈영이 되자 "삼백년(三柏淵) 원안풍(願安風) 노적봉 밑에~"로 재치 있게 수정해 위기를 넘겼다. 문 씨는 일본 경찰의 감시와 징용을 피해 함흥 어느 산골 발전소 공사장에 갔다가 이질에 걸려 28세 나이에 요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살이던 1933년 가요계에 데뷔한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을 발표하며 최정상급의 인기를 누렸다. 고은 시인은 '만인보' 중 이난영 편에서 "'목포의 눈물'은 겨레불이 모두의 노래였다"고 표현했다. 1942년에 이난영은 오빠 이봉룡이 작곡한 '목포는 항구다'를 불러 또 한 번 대히트를 친다.

'목포의 눈물' 문화자산으로

하지만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이난영에게 크나큰 시련을 안겨 준다. 다재다능한 작곡가였던 남편 김해송이 인민군에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난영은 가장의 부재 속에서도 악극단을 운영하라, 7남매(4남3녀)를 키우라 고생한다. 부모의 음악적 DNA를 이어받은

자녀들은 미 8군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마침내 미국으로 진출, '김 시스터즈'와 '김 보이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1965년 4월 11일, 49세 나이로 이난영은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한국연예협회장으로 치러졌고 경기도 파주시 관탄면 용미리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사후 이난영은 잊히는 듯 했으나 뜻있는 목포 문화인들에 의해 지난 2006년 고향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할 수 있었다. 현재 목포에서 이난영을 추억할 수 있는 곳은 양동 생가터와 유달산 노래비, 대삼학도 난영공원 등 3곳이다. 양동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 목포에는 활동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한 시대를 풍미한 '가요의 여왕'의 삶을 반추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더욱이 젊은 세대는 가요 '목포의 눈물'을 부르면서도 정작 이난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내년은 이난영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목포 문화인들은 목포를 '비틀즈의 고향' 리버풀처럼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찾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목포의 딸' 이난영이 부른 8종의 '목포의 눈물' 노래 음반을 직접 듣고, 활동상과 삶의 발자취를 한자리에 모아 놓은 박물관 건립이 절실한 까닭이다. /song@kwangju.co.kr

社說

안개만 껴도 운항 취소 국제공항 맞긴 맞나

무안국제공항이 '무늬만 국제공항'이란 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개만 조금 끼어도 이·착륙 예정이던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객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사 측의 손해는 차치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지난 19일 일본 기타규슈에서 출발, 이날 새벽 무안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편이 짙은 안개로 인해 결항했다. 특히 이 항공사 항공편은 같은 이유로 지난 15일부터 무려 6편이 무더기로 결항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밖에 무안공항에서 중국 장가계로 이날 오전 출발 예정이던 티웨이항공 편도 안개로 인해 결항하는 등 이 항공사 소속 항공편 2편이 결항했다. 최근 닷새 동안 무안국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기 11편이 결항하거나 착륙지를 변경한 것이다. 안개 같은 자연 환경에 따른 결항은 언뜻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

는 열악한 공항 시설이다. 인천·김포공항의 경우 가시거리가 50m 수준만 확보되면 이·착륙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무안공항은 가시거리가 550m 미만일 경우 이·착륙이 금지되는 국내에서 가장 열악한 활주로 운영등급(CAT-I)으로 인해 결항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등하 및 전파 장비를 통해 활주로 상황과 이착륙 높낮이를 조종사에게 알려주는 설비도 김포·인천 공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언제든지 이 같은 결항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한다. 날씨가 조금만 나빠도 운항을 할 수 없다면 이는 국제공항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려는 관광객과 관광업체, 민간 항공사 측은 점차 발길을 돌릴 것임은 자명하다. 관계 당국은 하루빨리 공항 시설 보강을 통해 활주로 운영 등급을 높임으로써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효사 지구 정비사업 왜 더딘가 했더니

중심사 지구 정비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도 추진되고 있으나 지난 1년간 전혀 진척이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왜 그러고 했더니 그 이유가 뜻밖이어서 어이가 없다.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일을 추진한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어설픈 행정 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업의 핵심은 원효사 계곡 주변에 부분별하게 들어선 음식점 등 40여 곳의 상가를 공원 밖으로 옮기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사업 대상지를 북구 충효동 최가정 일원으로 선정, 발표했다. 상인들의 이주 동의까지 받아 예정지를 확정했지만 공단은 1년이 지나서도 다른 곳으로 변경해야 했다. 공주시로부터 이전 예정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개발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그만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찌 그렇게 일을 어수룩하게 시작했는지 참으로 어

처구니가 없다. 최소한의 기초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진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 결국 원효사 지구 정비사업은 이주시 선정 발표 이후 꼬박 1년간 허송세워져 어이가 없다.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일을 추진한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어설픈 행정 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업의 핵심은 원효사 계곡 주변에 부분별하게 들어선 음식점 등 40여 곳의 상가를 공원 밖으로 옮기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사업 대상지를 북구 충효동 최가정 일원으로 선정, 발표했다. 상인들의 이주 동의까지 받아 예정지를 확정했지만 공단은 1년이 지나서도 다른 곳으로 변경해야 했다. 공주시로부터 이전 예정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개발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그만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찌 그렇게 일을 어수룩하게 시작했는지 참으로 어

은편칼럼



박홍근 포유건축 대표

장소×이야기+마케팅=관광자산

시커야한다. 광주월드컵경기장은 하나의 좋은 사례다. 이곳은 지난 7월에 광주U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진 주경기장이었다. 모두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한다. 광주와 중앙정부는 각자의 계축하를 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경기운영과 성숙한 시민들의 헌신적 참여, 국제대회 사상 대한민국의 최초 종합우승 등 장하기 그지없다. 이런 성과를 이룬 곳이 광주다. 그 역사적 이야기의 주무대가 광주월드컵경기장이다. 그런데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가 끝나고 광주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성공적이었다'란 허공의 메아리만 남길 것인가? 2002년 한·일 월드컵 8강에서 한국과 스페인 경기가 열렸던 곳도 광주였다. 승부차기 끝에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올렸다. 이를 두고 새로운 '신화(神話)'를 썼다고 온 대한민국이 흥분했다. 마지막 골을 넣고 전 국민의 환호 속에서 오랫동안 웃던 홍명보선수의 그 웃음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화'를 썼던 이곳은 어찌 됐는가? 신화의 흔적이라도, 기억이라도 남아 있는가? 아무 것도 없어 보인다. 허공으로 사라진 메아리뿐이다. 서울 삼암 월드컵경기장에는 '2002

FIFA월드컵기념관'을 만들었다. 수원 월드컵경기장엔 '축구박물관'이 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엔 신화의 흔적이 없다. 다만, 소비를 부추기는 상업공간과 이를 후원하는 비인간적이며 영혼 없는 물질만능주의의 주차장만 남아 있다. 국제대회 최초의 종합우승과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쓴 이곳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재의 달콤함 때문이다.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큰 문화자산을 만들 기회를 잃었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수학시간에 배웠다. 아무리 큰 수라도 '영(0)'을 곱하면 '영(0)'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아무리 작은 자산이어서 이야기를 곱하고, 마케팅을 더해 커다란 문화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혹자들은 말한다. 광주는 관광객들이 가볼 만한 곳이 없다고... 나도 그 의견에 일부 동의한다. 그런데 정말 가치는 이야기 소재가 될 것들이 없는가? 혹시 우리가 가치를 찾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작은 역사적 '사실' 하나를 가지고도 수많은 '이야기'를 덧대어 훌륭한 문화자산과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는 곳이 많다. 그러나 광주는 역사적, 감동적 '사실'

을 가지고 있는 곳을 찾아내고, 이야기로 포장해 수면 위로 올리는 노력이 없어 아쉽다. 지역의 경쟁력은 많은 관광객들과 기업인들이 방면해 자연스레 좋은 추억과 발전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다시 오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공간들이 많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곳을 발굴해야 한다. 약간이라도 정조가 있다면 이를 잘 다듬어 보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언급한 광주 월드컵경기장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광주와 전남에 이런 공간이나 장소, 인물들이 또 없을 까? 찾아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어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을 '별것'으로 만들고, 낯익은 것을 '낯설게' 하는 지혜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럴듯한 감동의 이야기를 곱하고, 마케팅을 더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자. 이는 문화관광자산이 될 것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윤재도 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갑질에 맞서는 올바른 정치후원

한 '올바른 정치'를 하라'고 외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주도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었고, 산업 기반이 취약해 경제 부흥을 위해 정부주도형 경제발전을 진행하려다 보니 소수 대기업에 특혜와 독점권을 주었다. 그에 따른 정경유착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모으는 일에 기업(재벌)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율령'이라는 격언처럼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 하면 국민들이 의식 속에 아직은 긍정적 인식 측면보다 부정적 인식의 뎀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그늘진 면면을 생각하고 불신과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인류역사상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정치체제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존립

이 위태로워질 것이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정치자금의 조달의 방법으로는 정당의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정당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국고보조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이 있다. 특히,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없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조달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정치발전에 일조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방법은 현금,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할 경우 자칫 쓰지 않고 소멸해 버릴 수 있는 포인트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 우리가 모금한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모여져 분기별로 국고보조금의 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되므로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정당으로부터 회계보고를 받고, 누구든지 정치자금의 사용내역 및 첨부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 우리가 후원한 소중한 정치자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다. 이상적 국가 상을 그린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의 정치가인 토머스 모어(1478~1535)는 '돈이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변명을 바랄 수 없다'고 했다. 아직 국민의 마음속에 얼룩지고 부패한 정치역사에 대한 실망,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후원에 대하여 냉소적인 사람이 많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발전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발전시켜 온 원동력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이다.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정치자금을 모아 정치참여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깨끗한 정치발전을 이룩해 보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미국 뉴욕 맨해튼의 '9·11 메모리얼 파크'는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숨진 희생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테러 현장(그라운드 제로)에 조성한 추모공원이다. 그라운드 제로의 중심에는 당시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인공 폭포가 있고 그 주변을 400그루의 나무가 에워싸고 있다. 400그루의 나무 중 399그루는 참나무다. 희생자들 대다수가 거주했던 뉴욕 인근 5개 주에서 가져와 심은 것이다. 참나무 사이에 유일하게 다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배나무다. 1970년대 월스트리트드래이드센터 광장에 심은 것으로 9·11 테러 당시 폐허 속에서 홀로 살아남았다. 갈기갈기 찢긴 채 발견된 배나무는 뉴욕 맨 코틀랜드 공원에서 생명을 다했아 9년 만에 그라운드 제로로 돌아왔다. 메모리얼 파크를 찾는 방문객들은 배나무를 보면서 테러에 굴하지 않은 생명력과 용기를 가슴에 새기곤 한다. 10m 크기의 배나무 주위에는 지름 2m에 높이 1m 가량의 철제 벤스만 있지만 나무를 훼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일본 나가사키에도 '생존 나무'가 있

다.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됐는데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감나무다. 피폭 감나무는 1994년에 비누마 마사유키라는 수목(樹木) 의사가 2세 나무를 심어 내어린아들에게 나눠 주기 시작했다. 2년 후에는 현대미술가인 미야지마 타스오 씨가 감나무 나눠 주기 운동을 추진해 23개국 250여 곳에 뿌리를 내렸다. 광주에는 2000년 4월에 건너왔다. 제일동포 사업가인 하정용 씨의 기증으로 광주시립미술관에 심어졌는데 반일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훼손될까 우려돼다가 이듬해 다시 심는 우여곡절 끝에 10월에는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지만 아직까지 감나무가 심어진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5일 광주에서 피폭 감나무를 조망하는 포럼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감나무 공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념과 국가를 떠나 '생존 나무'는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피폭 감나무를 보면서 반일 감정을 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공개 여부를 성숙한 시민 의식을 믿는 선택의 문제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평화 나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고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0-55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15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광고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